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7월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수 34% 대폭 증가

- ‘제23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에서 발표한 ‘2023 세계투자보고서’와 ‘중국 외자통계연감 2023’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외자 이용액은 4.5% 증가한 1,891억 달러로 EU와 아세안의 대중국 투자가 각각 95.3%, 9.5% 증가함
- 상무부에 따르면 1~7월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2만 8,406개 사이며 국무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등 6개 방면의 24가지 조치를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올해 백여명에 달하는 글로벌 다국적회사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투자환경을 고찰하고 투자협력 기회를 모색했으며 1~7월 첨단제조업의 외자 이용액이 25.3% 증가하였음. 1~7월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국가의 대중국 투자가 각각 213.7%, 159.9%, 113.3%, 61.2% 급증함
- ‘2023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러우 총돌, 식량·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는 12% 감소한 1.3조 달러,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37% 감소한 와중에 대중국 투자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유럽 다국적회사의 제조업과 하 이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로 나타남

자료원 : 상관(上观)

<https://export.shobserver.com/baijiahao/html/653342.html>

2 中, 1~8월 수출입 0.1% 감소...자동차 수출액 104.4% 증가

-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분석사(司) 류다량(吕大良) 사장은 9월 7일자로 글로벌 경제무역 성장 이 부진한 가운데 1~8월 중국의 수출은 성장세를 유지했고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함

- 1~8월 수출입은 0.1% 감소한 27조 위안(한화 약 4,904조 원)이며, 8월 수출입은 전월 대비 3.9% 증가한 3.6조 위안(약 654조 원)으로 월별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임
 - 한편 전기기계 제품 수출이 3.6% 증가한 9조 위안(약 1,645조 원)으로 전체 수출의 5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19% 감소한 8,493억 위안(약 154조 원), 휴대폰 수출은 7.5% 감소한 5,135억 위안(약 93조 원), 자동차 수출은 104.4% 증가한 4,427억 위안(약 80조 원)으로 나타남
- 8월 25일 상무부 대외무역사(司) 샤오루(肖露) 부사장은 향후 신에너지차 무역 협력 관련 정책을 출범하고 비철금속 등 업종의 수출입 안정을 도모할 계획을 발표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수출이 400만 대를 돌파하고 500만 대를 넘볼 것으로 분석함
- 중고차 수출도 활발하며 9월 6일 100대의 중고차를 실은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시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했으며 화물 총액은 3,700만 위안(약 67억 원)에 달했음

자료원 : 중국증권보

<https://www.cfbond.com/2023/09/08/991025867.html>

3 中, 1~8월 자동차 판매량 8.0% 증가

- 중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7.4%, 8.0% 증가한 1,823만 대, 1,821만 대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 8월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전월 대비 7.2%, 8.2% 증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7.5%, 8.4% 증가한 258만 대, 258만 대로 집계됨
- 1~8월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6.9%, 39.2% 증가한 543만 대, 537만 대로 시장점유율은 29.5%에 달했음
- 중국자동차산업협회 천스화(陈士华) 비서장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연이은 신품 출시는 시장수요 분출과 자동차 산업 발전목표 실현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9/12/content_26016447.htm

4 동북 3성, 상반기 GDP 5.8% 성장...대외개방 확대

- 중국의 동북 3성은 중요한 공업 및 농업기지로 에너지와 식량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동북 3성의 GDP는 5.8% 성장한 2.7조 위안(한화 약 490조 원)을 달성함
- 랴오닝자유무역시험구, 헤이룽장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혁신과 더불어 창춘·다렌·하얼빈시의 국가급 신구 개발, 중한(창춘)국제협력시범구, 중국-독일(선양)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 등의 건설, 창춘 아오디 이치(一汽)신에너지차, 선양 화천(华晨)BMW 6세대 배터리(투자규모 100억 위안) 등 외자 프로젝트 건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 올해 개최한 '제32회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에서 헤이룽장성 기업은 국내외 기업과 224건의 프로젝트, 846억 위안(약 1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창춘시에서 개최한 '제14회 동북아박람회'에는 42개 국가(지역) 기업들이 참가하여 99건의 프로젝트, 845억 위안(약 1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음

자료원 : 신화망

http://district.ce.cn/newarea/roll/202309/11/t20230911_38709501.shtml

5 中 가전업체, 해외 스마트가전 시장 진출 가속

- 중국의 가전업체는 '중국제조'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산 브랜드의 스마트 가전은 품질 우수와 혁신을 통해 해외시장에 인기임. 일부 가전업체는 해외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현지의 산업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있음
- 하이센스는 남아프리카에서 100여종 식단 추천이 가능한 스마트 냉장고를 출시하였고, 하이얼 세탁기는 소음이 작고 다양한 세탁 기능으로 태국 시장에서 인기이며, 또 하이얼은 태국에서 기온이 습하여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에 비추어 자체로 곰팡이 청결이 가능한 에어컨을 출시했음
- 가전 완제품 수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마트가전 브랜드는 해외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거나 해외 브랜드를 인수하는 추세임. 2013년 하이센스는 중국아프리카발전기금과 공동으로 3.5억 랜드화(한화 약 246억 원)를 투자하여 케이프타운 북부에 하이센스 남아프리카 공업단지를 건설하여 현지에 5,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메이디가 이집트에 건설한 식기세척기 공장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건설한 첫 번째 현대적인 식기세척기 공장임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9/06/content_26015380.htm

6 中, 탄산리튬 가격 톤당 20만 위안(약 3,630만 원)대로 회복

- 9월 8일 중국내 탄산리튬 거래가가 톤당 19만 8,500위안(한화 약 3,60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두 번째로 가격이 톤당 20만 위안(약 3,630만 원) 이하로 하락함
- 업계 관계자들은 탄산리튬 가격이 2022년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하락하여 배터리, 신에너지차, 에너지저장 산업의 양호한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함
- 상하이강련(上海钢联) 발표에 따르면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해 11월 톤당 60만 위안(약 1억 원)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 4월 12일 톤당 20만 위안(약 3,630만 원) 이하로 하락, 4월 23일 톤당 17.9만 위안(약 3,249만 원)까지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하여 5월 8일 톤당 20만 위안(약 3,630만 원)대로 상승했으며, 6월 9일 최고 톤당 31.5만 위안(약 5,718만 원)을 기록하고 다시 하락했음
- 선두(深度)과학기술연구원 장샤오룽(张孝荣)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재고 압력으로 탄산리튬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확대로 탄산리튬 수요가 증가하여 탄산리튬 가격을 지탱해 줄 것으로 분석함. 상하이강련 관계자는 탄산리튬 가격은 단기간 여전히 하락 여지가 있으며 이번달 말에 다소 반등하고 9월 톤당 18~21만 위안(약 3,267~3,812만 원)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ce.cn/cysec/ny/gdxw/202309/11/t20230911_38709299.shtml

7 베이징시, 1~6월 요식업 매출 37.3% 증가

- ‘2023년 베이징시 요식업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이징시의 요식업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7.3% 증가한 657억 위안(한화 약 12조 원)을 달성하였고 신설 요식업체는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한 7,610개사로 집계됨
- 올해 상반기 점포수가 앞자리를 차지하는 브랜드는 주로 음료, 스낵·패스트푸드 등으로 점포수 기준 상위 5대 브랜드는 루이싱(瑞幸) 커피, 스타벅스, 사셴(沙县, 푸젠) 스낵, 란저우(兰州, 간쑤) 라면, KFC임. 또한 1~5월 403개 브랜드가 베이징시에 ‘첫 매장(首店)’을 오픈했는데, 이 중 요식업 매장이 63%를 차지하며 1위를 달성함
- 올해 상반기 패스트푸드와 차음료를 찾는 고객이 많았으며 평균 소비액은 21~40위안(약 3,813~7,262원) 사이로 2년 전보다 다소 하락함. 한편 개맹점, 해외 진출, 가격 경쟁, 밀키트 등이 요식업 분야 관심사로 떠올랐고 프랜차이즈화, 디지털·스마트화, 글로벌화, 자본화, 지역단지화, 건강화 등이 향후 베이징시 요식업 발전 트렌드로 주목받을 전망

자료원 : 신경보

<https://www.bjnews.com.cn/detail/1693909924169613.html>

8 中 공상업연합회, 2023년 500대 민영기업 발표

- 중국 공상업연합회는 9월 12일 ‘2023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과 ‘2023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1~3위는 징둥그룹, 알리바바, 헝리(恒力)그룹으로 조사됨
- 500대 민영기업 문턱은 매출 276억 위안(한화 약 5조 원)이며, 이 중 매출이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을 넘은 기업이 95개사에 달했고, 올해 공상업연합회의 민영기업 조사에는 매출 5억 위안(약 909억 원) 이상인 기업 8,961개사가 참가하였음

순위	기업명	소재지	업종	매출(억 위안)
1	징둥그룹  JD.COM	베이징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10,462
2	알리바바  阿里巴巴 Alibaba.com	저장성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8,645
3	헝리(恒力)그룹  恒力集团 HENGLI GROUP	장쑤성	석유, 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업	6,118
4	정웨이(正威)국제그룹  IMER 正威集团	광둥성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6,088
5	저장룽성(荣盛)홀딩스그룹  浙江荣盛控股集团 ZHEJIANG RONGSHENG HOLDING GROUP	저장성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5,796

자료원 : 신화망

http://www.news.cn/fortune/2023-09/12/c_1129858217.htm

http://www.acfic.org.cn/ztlzh/cwhy131_8869/2023my5bq_05/202309/t20230905_195489.html

8 中, 관광시장 회복세로 2분기 주요 관광업체 실적 양호

-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63.9% 증가한 23.8억 명이며, 이 중 2분기 관광객은 86.9% 증가한 11.7억 명으로 집계됨. 관광시장 회복세로 2분기 주요 관광업체 실적도 양호하게 나타남
- 온라인 여행사 시에칭(携程, C-trip)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80% 증가한 112억 위안(한화 약 2조 원), 순이익은 6.5억 위안(한화 약 1,180억 원)을 달성했고 통청(同程) 매출은 117.4% 증가한 28.7억 위안(약 5,211억 원), 순이익은 무려 428.9% 증가한 5.9억 위안(약 1,071억 원)을 기록했음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309/202309071112411048.html>